

데스크 시각



김 일 환 편집부국장

연간 매출액이 117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표 제조업체 GE(General Electric)가 대변신을 선언했다. '2020년까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는 혁신 비전을 발표한 것이다. 더 이상 제조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GE는 비전 발표 이전에도 꾸준한 변화를 진행해 왔다. 이미 한 해 매출의 75%는 제조가 아닌 사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즉 제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서 이윤을 내고 있는 것이다.

GE와는 정반대되는 혁신의 사례도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과 구글이 자율 주행차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로는 다가올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 뻔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융합해서

광주·전남,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가자

찾은 것이다. 이렇듯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조업에 뛰어드는, 전혀 다른 이중 결합이 지구촌 경제에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일컬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하드웨어에 융합해 고도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이 소프트 파워의 극대화라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융합을 선택한 것이다.

화두는 소프트 파워·융합

중기기관으로 대변되는 1차 산업 혁명을 거쳐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을 이끈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라는 3차 산업혁명까지 제품의 경쟁력은 제조에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똑똑한 제품, 창의적 아이디어 만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경제·산업, 사회·문화, 고용·일자리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 식문화, 건강, 고령화,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이를 대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학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들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점점 거세지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선 후보들도 앞다투어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각 시·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역산업을 기술(Technology), 산업(Industry), 인재(Person), 공간(Space)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 전환 모형(T.I.P.S)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 간 경계 파괴, 연구 개발 전환, 창의적 인재 양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10대 전략산업, 경남은 10대 핵심 전략산업, 경북은 5대 핵심 기술 및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중이다. 벌써 시·도 간 치열한 선점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의 큰 흐름을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함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이후 지역인 광주·전남에 던져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작금의 상황은 광주·전남 지역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다시 말해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시점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다. 뒤처진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선점 경쟁에서 이겨야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경제는 몇몇 기업에만 의존해 부침을 거듭했고 소비가 주가 되는 기형적 성장을 보여 왔다. 더욱이 최근 장기 불황과 조선·철강산업의 쇠락은 가뜰이나 어려운 광주·전남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끝 모를 추락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모델에 목말라 있다.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은 화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광주·전남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물론 소프트 파워를 이끌 인재를 키워 낼 지역 대학,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하나 되어 그랜드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우리 스스로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래 또한 없다. 질체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광주·전남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은편칼럼



송 민 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인성교육의 요람은 가정이다

에서 가만 놔두질 않는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에게 무책임한 것이고,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현재의 행복이 아닌 미래의 승리를 위해 자정이 가까워져야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부모는 전장에 내보낸 병사의 귀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이가 올 때까지 밤잠을 설친다. 가정이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사(戰士)나 온실 속의 왕자와 공주를 키우는 장소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건전한 윤리의식이 뿌리내릴 토양이 더 이상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학부모가 "공부만 해라, 나머지 엄마가 다해줄게"라는 식이다. 제 방의 이부자리 정리느끼는 등·하교 길마다 자녀를 태운 승용차들로 변질한 교문 앞은 북새통을 이룬다. 사랑과 교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에 의해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

들이 늘어나고 있다. 버릇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대가족사회에서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교육기능과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 아무리 핵가족사회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모습에 얽힌 훈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응석받이아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패륜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잉보호와 원칙 없는 보살핌이 가정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음이다. 명문대 출신은 많아도 어순과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다.

남을 배려하고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붙잡고 가르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인성교육의 요람은 가정이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매 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길러만자로의 표범처럼 배가 고파 굵어

죽을지언정 하이어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절제와 염치를 알게 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정교육이다. 교육학자 루소는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온실 속 화초로 키우는 대신 역경(逆境)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는 정재봉의 '공씨네 자녀교육'이 긴 여운을 남긴다. "맹목적인 잘못된 사랑은 비뚤어진 사람을 만든다."는 경구에 귀를 기울이며 새 학기 첫 출발을 슬기롭게 준비하자. 가정교육이 살아 있는 사회가 살맛이 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세 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와 바이올린, 기타를 다룰 줄 알며 작곡도 해보았던다. 그런데 그림듯한 상을 타지 못하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공부부를 강조하더니 고등학교 때는 음악가가 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제 음악을 심사위원들이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아빠 엄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요. 나중에 취미로나 하라면서..."

"선생님과도 상의했는데, '서울대 나온 가수가 멋있더라' 하시며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해봤지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아이는 없었어요." 그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 후로 한 번도 진실하게 꿈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허황된 꿈이나 큰다고 할 것 같아 적당히 이야기하곤 했어요. 실은 어디까지가 제 마음인지 알 수도 없었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을 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내일도 이야기 할까"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다음 날은 내 옆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 끓이는 솜씨가 형편없는데도 그 아이는 맛있다며 후후 불며 거품 세 잔을 마신다.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엄마와 사는데 엄마 혼자 제 뒷받침을 하시는 힘들죠. 아빠도 가끔 만나는데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하세요. 사실 저도 음악으로 성공하리라 확신은 못해요." 부모님의 이혼 후 곱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고3이 되니 새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를 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엄마 아빠도 자신이 잘하면 재검합은 못해도 훨씬 편해질 거란다. 이미 스스로 결론을 알고 방향도 정한 듯했다. 어떤 순간에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 자기를 "잠 안된 애"라고도 하고 "엄마만 불쌍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니 마침내 울어버렸다. 이렇게 엄마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도 잘하는 아이가 작년부터 엄마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낀다. '아, 많이도 참았구나. 얼마나 큰 아픔이 저 어께 밑에 감추어져 있던 말이나.' 나도 가슴이 저려온다.

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치기를 기다린다. 한참 후 눈물 어린 내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려는 아이에게 나는 약속하며 "믿는

다. 항상 견강해라" 했을 뿐이었다. 그 후 아이는 창문 앞에 서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나 둘 나를 찾아왔다. 바쁜 일을 제쳐놓고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말을 들었다. 한꺼번에 7~8명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비스비스하듯 이야기기 그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바뀌기도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한 아이는 "그냥 들어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다. 보통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몇 분 듣지도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버린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바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힘을 북돋운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편했다 보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무엇을 잘 못하고 있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오히려 아이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결론은 대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이지, 학업을 중단하고 세계를 향해 모험을 하겠다는 거, 내일 하루 결사하고 무등산에 올라 가슴을 툭 터주고 오겠다는 아이는 없다.

社 說

현재, 역사와 국민 위한 엄중한 결단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어제 오후 진행된 평의에서 현재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오늘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데 오후중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고 기일 공개가 하루 늦춰지면서 각종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등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선고 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끝 모를 추락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모델에 목말라 있다.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은 화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광주·전남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물론 소프트 파워를 이끌 인재를 키워 낼 지역 대학,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하나 되어 그랜드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우리 스스로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래 또한 없다. 질체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광주·전남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로 IMF의 국제 금융을 받았던 시절, 국민은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금 모으기 운동' 등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부활에 온 힘을 다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력은 결국 IMF 체제 조기 졸업의 성과로 나타났다.

현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현재의 상황은 지난 97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 정당과 대선 예비 주자들은 조속히 '현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시대적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도 어떠한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소명의심으로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엄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지역 차원 대책 있어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어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정치적 경제보복'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단체관광 금지, 롯데마트 중국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도 모자라 우리나라 정권의 포럼 참석까지 막는 등 사드 배치 방침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 날로 치졸함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 역시 공연 취소, 관광객 감소 등 사드 경제 보복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점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장 무를 선보이려 했으나 사실상 전면 취소됐다. 특히 중국 여행사를 통해 난징(南京), 칭다오(靑島), 산둥(山東)성 등

에서 이미 관광객이 모집됐으나 중국 정부의 방호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중국 친화도시 이미지 조성과 광주를 중국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일대 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였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될 형편이다.

전남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발 전세기 예약과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기 불가능해져 해외 관광객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수산 수출과 중국관련 기업 투자 지연 등 사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광주시의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경비행기나 헬기로 관광을 하는 스카이트어는 짧은 시간에 경치를 감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시간 이내에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약간의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경치가 좋은 세계적인 관광지에선 오래전부터 스카이트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100대 자연경관 중 으뜸'이라는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제대로 보려면 2주가 걸리지만 스카이트어를 이용할 경우 2시간이면 충분하다. 경비행기로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그랜드캐니언 곳곳을 둘러보고 되돌아오는 데 2시간 걸린다.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의 후버댐은 이륙 10분 만에 감상할 수 있다.

섬나라 필리핀은 세부를 중심으로 스카이트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비행기를 타면 인근 보홀섬 등 에메랄드 빛 바다에 접점이 떠있는 개성 있는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보홀섬은 1269개의 '초콜릿 할로 유명하다. 거인 아르코의 슬픈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마을 처녀를 짝사랑했던 아르코는 어느 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려고 하자 납치하겠다고 위협했다. 고심하던

처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아르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날마다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이 방울방울 모여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언덕이 됐다고 한다. 지상에서 보면 조그만 언덕들이 '아르고의 눈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없지만 스카이트어를 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20년 전 허니문으로 호주에 갔을 때 골드코스트에서 즐겼던 헬기 투어가 새롭다. 계류장까지는 리무진으로 갔고 헬기가 이륙하자 골드코스트의 황금 해변과 도심 고층 건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0여 분의 비행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수에 스카이트어가 등장했다. 10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여수공항을 출발해 30분 동안 모게도~사도~백야도~항일암 등을 둘러보고 되돌아오는 코스다. 운행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 5월까지 예약이 팍찰 만큼 인기다. 5만9000원에 다음 달부터는 리무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니 예약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다. 스카이트어가 다도해 섬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